부르심을 받은 자

(히브리서 5:1-10)

주위에 보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보는 사람, 혹은 '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통하여 함께 가는 자를 필요로 하십니다. 성경과 같은 응답을 받고, 지속적인 응답을 받으려면 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도 중요한데 본 사람은 다른 차원에 있게 됩니다. 성경적인 눈으로 전도를 본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통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금까지의 말씀 또한 정리가 됩니다. 잊었던 것, 발견했던 것이 정리 되어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순서가 예측되기도 합니다. 미래가 보인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과 원네스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에 대한 갈등도 사라지게 되며, 하나님은 마음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 사람을 통하여 시행하시게 됩니다. 옆길로 가지 않을 것을 아시며,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면 사탄에게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을 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받는 것은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그 예배로 받은 말씀을 통하여 눈이 열리게 됩니다. 눈이 열리고, 보게 되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말씀이 자동으로 언약이 되고, 자동으로 기도가 됩니다. 때로 중요한 것이 들어오면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확신과 함께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응답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응답을 통하여 많은 것을 확인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확정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나오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가 보이게 됩니다. 대부분 그저 하고 있으나 어떻게 다음으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확신과 함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말씀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답을 가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저 앉아서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았으나 믿음으로 결론 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는 이유가 이 '정복'에서 나옵니다. 한나가 응답을 받고 난 뒤에 즉시로 바뀐 상태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대단하고, 어렵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한나는 10년 동안 기도 했으나 응답이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아들이 아직 생긴 것도 아니지만 답이 나고, 결론이 났습니다. 반드시 되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주어지고, 미래를 정복하며, 이스라엘의 최고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말씀을 받으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축복이 있으나 대부분 그저 예배를 왔다 갔다 합니다. 지속적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고, 사탄이 압니다. 갱신하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것이 아닌 당연히 되어지고, 필연적인 것이 됩니다. 이것이 아니고는 길이 없습니다. 말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됐다고 하면 무조건 되어지는 것입니다.

1. 부르심을 받은 자

본문 4절에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존귀는 1~3절에 보면 제사장에 대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예수님도 하나님 본체이시나 예수님마저도 자기 뜻대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대제사장은 없습니다. 6절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엑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전쟁을 끝냈을 때 나타난 인물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십일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한 번 더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시편에 나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아브라함은 BC 2,200년의 사람이라 보고, 다윗은 BC 1,000년이라고 봅니다. 1,200년 이후의 사람, 다윗이 같은 단어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고,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언약의 피를 고백하지 못하므로 사탄의 공격을 있는 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사장이 없이 제사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주, 운명, 재앙이 절대 떠나지 않고, 사탄에게 죽도록 속으며, 시달리며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제사장이 없는 삶입니다.

선지자 직분 또한 중요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직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선지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없으면 세상에는 말씀이 사라지고, 인간은 자기 소견대로, 각자의 생각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사사기에 그 시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레위인의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내어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보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취했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입다라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하며, 내 집에서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했으나, 무남독녀 딸이 나왔고, 딸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누가 그러라고 한 게 아닌 자기의 소견이었으며, 그것이 굉장히 큰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의 피 안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이 모든 황당한 사건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인 바리새인 또한 그 예입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는 없었고, 말씀을 400년 동안 받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왕직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의 언약이 바로 서야 사탄을 꺾을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언약이 바른 왕이 한 사람도 없

었고, 결국 앗수르에 끌려가서 다 죽게 됩니다. 유다에는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왕을 성군으로 뽑습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는 기적이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는 전쟁마다 승리했고, 히스기야는 앗수르 군대 18만 5,000명이 하룻밤에 다 죽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서 그날 밤에 기도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기도를 들을 만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요시야왕은 율법책을 발견하고, 대대적으로 종교를 개혁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왕이었습니다. 왕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왕이 우상숭배를 한다면 나라 전체에 재앙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왕입니다. 제대로 된 왕이 아니면 전 백성이 죽게 되며, 제사장 없이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제사장 없이 제사를 드릴 수 없음에도 사울왕은 스스로 제사를 드렸고, 드리고 난 후에 사무엘이 왔고, 사무엘이 그 자리에서 왕에게 왕이 망령된 짓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나라는 빼앗기게 되고, 왕 직 또한 빼앗기게 됩니다. 사무엘상 13:13-14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없어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 사람(바리새인)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외우는 난리를 벌였으나, 그 성경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적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을 다 외우는 게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은혜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되어진 게 아닌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늘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되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출애굽해서 나온 자들은 하나님이 출애굽 하게 하신 이유를 몰랐고, 결국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정말 눈을 뜨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이유는 세계 복음화 하나뿐입니다. 눈이 열리면 인생을 정복하게 됩니다. 사역자, 장로, 목사, 일반성도, 렘넌트라도 전도에 눈이 열리면 인생 정복하게 됩니다. 하는 게 아닌 보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 전도를 보면 우리 주변에 많은 문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순서대로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평생에 걸쳐 이 응답은 지속될 것입니다. 방법은 다른 게 아닌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2. 순종

8절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존재(동급)이십니다. 순종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라고 했습니다.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나온 결과는 온전해진 것입니다. 지나가기 쉬운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조건은 예수님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입니다.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겠냐?' 했을 때 순종하며, '예'라고 답한 자가 구원 받습니다. 우리도 이 작은 구원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온전해져서 사람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된,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WIOS(WITH, IMMANUEL, ONENESS System)를 느끼고, 누리며, 시스템이 세워지고, 온전하여져서 복음을 전하므로, 다른 사람의 구원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으며,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면 그건 불신자 수준이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기념비입니다. 순종 없이 여기로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이유에 인간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망하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바깥에서 잘 살고 있으나 모두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뜻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순종이 되지 않는다는 건, 내 뜻대로 사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 인생이 작품이 될 수 없습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이며, 그렇게 되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인생을 드려야 합니다. 내 모든 문제의 답은 근본은 그리스도입니다. 미래를 정복하고, 인생이 성경과 같은 작품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만나고, 소원이 통하고, 이유가 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WIOS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WITH,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누리는 Immanuel, 하나님이 모든 것과 함께하심을 느끼는 Oneness를 시스템화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성경적 축복이 우리 평생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